

중국의 북·중 관계 연구기관과 성과*

이금휘(중국 칭화대학교)

논문 요약

본 논문은 중국 학계의 북·중 관계 연구 현황에 대하여 기초조사한 후,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필자의 기초조사 결과, 북한의 최대 맹방으로 알려진 중국에 오히려 북·중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기구가 없으며, 언론의 시사적 접근 수준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관련 연구자들도 대부분 국제관계 전공이기 때문에, 대국관계 연구의 하위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북한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학술 차원의 본격적인 북·중 관계 연구는 크게 부족한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등 중앙급 연구기관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역적 우세와 언어적 장점을 동시에 구비한 ‘글로벌 로컬’로서의 연변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대한 주목은 거의 없었다. 더불어 북·중 관계를 단순히 전통적 관계의 복원 또는 경제적 관계의 활성화로 한정시킨 논의들도 연구의 한 단계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 학계의 관련 연구기관과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북·중 관계연구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한·중 학술교류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중국, 북한, 북·중관계 연구기관, 북·중 관계 연구성과

* 본 논문은 2015년도 국사편찬위원회 남북역사학 기초조사 연구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활성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15년 10월 류원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비 경제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도 점쳐진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학계에서는 북중 관계의 발전과 성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중국학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학계와 접근방법에서부터 커다란 차이를 드러낸다. 중국학자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대로 ‘북·중 관계 70년’이라는 역사 창고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끄집어내어 자신의 주장을 풀어간다. 반면에 다른 국가의 학자들은 대체로 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 한다. 그 결과 중국학자들은 신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호하단 평가까지 받는다.

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일까가 본 논문의 최초 문제의식이다. 한국에서도 공부했던 필자가 알고 있는 한, 한국 학자들은 동북아와 한반도문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방향의 중국 학계 연구 성과에 대하여 별반 관심이 없었다. 이것은 또 왜 그럴까? 누구도 중국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이외 국가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중국에서의 북한 관련 연구기관과 그 학문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북·중 관계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국학계 연구성과가 갖는 ‘모호성’의 문제 규명과 함께 향후 연구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북중 관계에 대한 하나의 공식 견해만 있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의 대응 또는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만이 외부에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크게 바뀌고, 중국 자체

도 변화함에 따라서 중국학계에서도 북·중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한반도, 북한을 연구한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중남해(中南海)에서 당·정 최고 지도자들과 북한문제를 토론하며, 또 일부는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빈번한 텔레비전 출연이나 신문 논평을 통해 중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논문을 쓰게 된 두 번째 이유이다.

중국 연구자들은 전통적으로 북·중 관계를 ‘당 대 당’의 ‘1 : 1’ 특수관계로 다뤄왔다. 그런데 탈냉전을 전후로 중·소, 중·미 관계의 이중구조 속에서 북·중 보편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 연구자들의 관점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006년 제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전통파’와 ‘전략파’로 크게 나뉘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대방을 근거를 가지고 논리로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관계를 전략적으로 풀기에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축적된 ‘특수성’이 해결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풀기에는 국제관계적인 ‘보편성’도 크게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북한을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역량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초조사의 바탕 위에서만, 중국 학계의 북·중 관계 연구 동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한국 학계 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I. 중국의 북·중 관계 관련 연구기관 현황

지금까지 중국의 북·중 관계 연구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리는 대체로 중앙급 연구기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¹⁾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북·중

관계 연구기관들 전체에 대하여 문헌 검토와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조사, 정리해 봤다.

먼저 중국의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의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 현황

서	연구기관	서	연구기관
1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朝鮮半島研究室	31	天津社會科學院東北亞研究所
2	中國國際問題研究院亞太研究所	32	天津師範大學外國語學院韓國文化研究中心
3	當代世界研究中心	33	浙江大學韓國研究所
4	國務院發展研究中心亞非發展研究所朝鮮半島問題研究室	34	溫州大學韓國學研究中心
5	中國社科院亞太與全球戰略研究院	35	東南大學外國語學院(江蘇省國際問題研究中心)亞太語言政策研究中心
6	中國社科院中國邊疆研究所東北及北部邊疆研究室	36	長春師範大學東北民族歷史與文化研究中心東北亞研究所
7	中共中央黨校國際問題研究所	37	山東大學東北亞研究中心
8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亞洲司	38	山東大學韓國學院中國朝鮮半島研究網
9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國際戰略研究院	39	山東社會科學院國際經濟研究所
10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國際政治經濟研究中心	40	青島大學東亞文學與文化研究中心
11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韓國學研究中心	41	煙臺大學人文學院東亞研究所
12	清華大學當代國際關係研究院亞太安全研究中心	42	煙臺大學人文學院國際問題研究所
13	清華大學當代國際關係研究院清華-卡內基全球政策研究中心	43	黑龍江社會科學院東北亞研究所(半島研究室)
14	中國人民大學國際關係學院國際事務研究所	44	黑龍江社會科學院東北亞和國際問題研究中心
15	中國人民大學國際關係學院東亞研究中心	45	遼寧省社會科學院東北亞研究所
16	中國人民大學國際關係學院韓國研究中心	46	遼寧省社會科學院東北亞研究中心
17	中國人民大學亞洲研究中心	47	大連大學中朝交流中心
18	中央民族大學民族學與社會學學院韓國文化研究所	48	遼寧大學東北亞研究院
19	北京外國語大學亞非學院朝鮮語系韓國語教育研究中心	49	遼寧大學亞洲研究中心
20	北京語言大學外語學院朝鮮語專業韓國語研究中心	50	遼東學院朝鮮半島研究中心
21	北京第二外國語學院朝鮮語系韓國語言文化中心	51	吉林省社會科學院朝鮮韓國研究所

1) 한석희, “중국에서의 한반도연구: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논총』 43집 2호, 2003; 박종철, “북중관계 연구현황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4집 1호, 2010; 전병곤·양갑용,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2-09, 2012.

22	中國海洋大學韓國研究中心	52	吉林大學東北亞研究院
23	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朝鮮韓國研究中心	53	吉林大學行政學院東北亞戰略與政策研究所
24	華東師範大學冷戰國際史研究中心	54	吉林省政府(吉林省社科院代管)吉林省東北亞研究中心
25	同濟大學亞洲太平洋研究中心朝鮮半島研究室	55	東北師範大學朝鮮韓國研究中心
26	上海社會科學院國際關係研究所韓國研究中心	56	延邊大學朝鮮半島研究院
27	上海社會科學院國際關係研究所朝鮮半島研究中心	57	延邊大學朝鮮半島協同創新中心
28	南京財經大學東北亞經濟合作研究中心	58	通話師範學院朝鮮半島經濟文化研究中心
29	中山大學亞太研究院韓國研究所	59	北華大學東亞研究中心
30	南開大學亞太經濟合作組織研究中心		

<표 1>과 같이 현재 중국에는 대략 59개의 관련 연구기관들이 있다. 이들 연구기관의 주된 연구 주제는 대한민국, 한·중 관계, 북핵문제이다. 놀랍게도 북한 역사와 당면현안을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은 없다.

59개 관련 연구기관²⁾ 가운데 현대 북·중 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을 선별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중국의 북·중 관계 관련 연구기관 현황

No.1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소		
중국어명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朝鮮半島研究室	[소개 및 약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중국 국내 관련 연구의 최고 연구기관이다. 그 직속기구인 조선반도연구소는 중국 국내 한반도문제연구의 중요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경제, 남북 외교, 안보, 경제 등 포괄적 연구를 기초로 정세 분석과 정책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중, 북·중 우호협력관계 및 중국과 남북한 정부, 학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조선 국제문제연구소와 양호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북·중 관계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매우 적다.
기관등급	중앙급/최고 등급	
설립시간	—	
책임자	리쥘(李軍)	
연구자 ³⁾	천샹양(陳向陽)	
홈페이지	http://www.cicir.ac.cn	
연락처	전화: 국내사무 010)6841-8631 국제사무 010)6841-8640 팩스: 010)6841-8641 주소: 北京市海澱區萬壽寺甲2號 우편: 100081	

2) 여기서 북·중 관계 연구 관련 연구기관은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연구자의 연구방향 및 1편 이상을 게재한 제1저자 소속 연구기관에 한해 정리하였다.

No.2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중국어명	中國國際問題研究院 亞太研究所	[소개 및 약평]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은 외교부 직속 연구기관이며, 그 산하에 있는 아태연구소는 동아시아지역 협력과 안보문제를 주 연구방향으로 삼고 있다. 유럽동맹, 일본, 한국, 북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현황과 정책적 지향 및 중국과의 관계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주변 안보문제 즉, 한반도문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안보와 협력 추세 연구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북중 관계 연구는 한반도문제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기관등급	중앙급/외교부 소속	
설립시간	—	
책임자	위샤오화(虞少華)	
연구자	위샤오화(虞少華)	
홈페이지	http://www.ciis.org.cn	
연락처	전화: 010)8511-9573/8511-9645 팩스: 010)6512-3744 주소: 北京市東城區台基廠頭條3號 우편: 100005	

No.3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와 글로벌전략연구원		
중국어명	中國社科院 亞太與全球戰略研究院	[소개 및 약평]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와 글로벌전략연구원은 중앙급 연구기관이며, 2011년 12월 29일 아시아와 태평양 연구소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중국의 대외관계 영역, 국제관계 영역의 중대한 이론과 현실적인 문제를 주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대국관계 속의 한반도문제, 동북아시아구도 속에서의 한반도문제, 한국문제 연구 위주로부터 근래에 와서 북중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등급	중앙급	
설립시간	2011년 12월 29일	
책임자	리쑹양(李向陽)	
연구자	파오광지(朴光姬), 파오젠이(朴健一)	
홈페이지	http://niis.cass.cn	
연락처	전화: 010)6406-3922 주소: 北京市東城區張自忠路3號 東院 우편: 100007	

No.4 중국사회과학원중국변강연구소 동북 및 북부변강연구실		
중국어명	中國社科院中國邊疆研究所 東北及北部邊疆研究室	[소개 및 약평] 중국변강연구소는 중국사회과학원 직속 오픈 연구기구이며, 1983년에 설립되었다. 전신은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다. 그 전문부서로서의 동북 및 북부변강연구실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북부변강, 인접국가의 역사와 현황, 최근 정세 및 그 관련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북중 관계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매우 적다. 기관 홈페이지에 명시된 리우웨이(劉爲)의 연구성과로 볼 때 근대 한중 관계 연구를 위주로 한다.
기관등급	중앙급	
설립시간	1983년	
책임자	빠아오난(畢奧南)	
연구자	리우웨이(劉爲)	
홈페이지	http://bjzx.cass.cn	
연락처	전화: 010)6527-4302 주소: 北京市東城區先曉胡同10號 우편: 100005	

- 3) 여기서 취급하는 '연구자'는 주로 기관별 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연구자들만 가리키며, 직접적으로 북중 관계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를 소개하였다.

No.5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중국어명	中共中央黨校國際戰略研究所	[소개 및 약평] 중공중앙당교는 중국의 고위직 간부를 양성, 교육하는 최고의 학부이자 국가연구기관이다. 2000년 4월 24일 그 산하에 국제전략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주요하게 중대한 국제전략문제 및 중국의 대외정책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세계경제, 국제관계, 외교학, 국제정치경제학 등 학과를 두고 있으며 관련 연구실도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다. 전문적으로 북중 관계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는 최근 미국문제 연구를 하던 류우루펑이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연구물을 내 놓았을 뿐이다.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는 장롄구이 교수는 여전히 한반도정세를 위주로 남북한 모두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관등급	중앙급	
설립시간	2000년	
책임자	한바오장(韓保江)	
연구자	장롄구이(張琨), 류우루펑(劉儒鵬)	
홈페이지	http://bjzx.cass.cn	
연락처	전화: 010)6282-5341 팩스: 010)6280-6068 주소: 北京市海澱區大有莊100號 우편: 100091	

No.6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국제전략연구원		
중국어명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國際戰略研究院	[소개 및 약평]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은 2013년10월 설립되었으며, 전신은 2007년 5월 설립된 국제전략연구중심이다. 원 국무위원 다이빙귀(戴秉國)가 연구원의 명예원장으로 초빙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이 처한 국제환경 및 각 국의 국제전략 분석을 기초로, 연구결과물을 공식 오픈하거나 관련 정부기관에 정책적 제언을 주고 있다. 북중 관계 연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주펑의 경우와 같이 북핵문제, 6자회담과 연동시켜 연구하는 정도이다.
기관등급	국가급	
설립시간	2007년	
책임자	왕지스(王緝思)	
연구자	주펑(朱峰)	
홈페이지	http://www.iiss.pku.edu.cn	
연락처	전화: 010)6275-6376 팩스: 010)6275-3063 주소: 北京市海澱區頤和園路5 우편: 100871	

No.7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어명	清華大學當代國際關係研究院	[소개 및 약평]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은 1997년 설립된 국제문제연구소, 2008년 설립된 국제관계학과, 2009년 재 조정된 정치학과를 통합하여 2010년에 설립되었다. 명예원장은 전 국무위원 탕자롄(唐家璇)이며, 앤쉐통교수가 원장으로 있다. 정량적 분석법과 자연과학 연구방법론으로 국제관계문제를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직 교수 대부분이 실무담당자거나 정부의 관련 부서와 일정한 업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북중 관계 관련해서는 앤쉐통 교수 외에는 직접적 연구자나 전문 연구부서가 없다.
기관등급	-----	
설립시간	2010년	
책임자	앤쉐통(閻學通)	
연구자	앤쉐통(閻學通)	
홈페이지	http://www.tsinghua.edu.cn	
연락처	전화: 010)6279-8183 팩스: 010)6277-3173 주소: 北京市海澱區清華大學明齋304室 우편: 100084	

No.8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카네기 글로벌정책연구중심		
중국어명	清華大學當代國際關係研究院 卡內基全球政策研究中心	[소개 및 약평]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연구중심은 카네기국제 평화연구원 아세아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경제, 안보 및 정치적 문제를 주 의제로 현 정책, 시사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카네기 타 연구중심과 협력하여 다양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토론의제는 국제경제와 무역, 기후변화와 에너지, 핵문제와 군축 및 그 외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이슈들이다. 이 범주에서 한반도문제, 아프가니스탄문제, 이란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중 관계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기관등급	국가급	
설립시간	1994년	
책임자	폴 한레이(韩磊, Paul Haenle)	
연구자	옌웨이통(阎学通) 리뎨(李彬), 자오통(赵通), 쑨쉐펑(孙学峰)	
홈페이지	http://carnietsinghua.org	
연락처	주소 : 北京市海淀区中关村东路1号 院3号楼 清华科技园创业大厦408 우편: 100084	

No.9 푸단대 국제관계학원 조선-한국연구중심		
중국어명	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 朝鮮韓國研究中心	[소개 및 약평]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중심은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외교부 정책연구 중점협력기관(2013-2015) 중점협력기관이다. 중요 연구방향은 1) 한반도문제 및 동북아 국제관계, 지역협력연구 2) 당대 한국연구 3) 한국 독립운동 및 근대 한·중 관계 연구 4) 한국 종교철학과 동방전통문화 등이다. 그 중 한국독립운동과 한·중 관계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중 관계 연구는 한반도문제, 핵문제, 한·중 관계 연구와 연동되어 진행할 뿐이다.
기관등급	외교부 정책연구 중점협력기관 (2013-2015)	
설립시간	1992년	
책임자	스위안화(石源華)	
연구자	스위안화(石源華), 선딩리(沈丁立), 팡시우위(方秀玉)	
홈페이지	http://www.iis.fudan.edu.cn	
연락처	전화: 021)5566-4940/5566-4941 주소: 上海市國權路600號 復旦大學經濟學院文科大樓 우편: 200433	

No.10 화동사범대 냉전국제사연구중심		
중국어명	華東師範大學 冷戰國際史研究中心	[소개 및 약평] 화동사범대 냉전국제사연구중심은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내 유일한 냉전사 연구기관이다. 아울러 러시아 당안 해체를 위주로 국내 유일한 관련 자료센터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연구인원은 주로 화동대 관련 연구자와 해외 유명 학자를 초빙교수로 구성되고 있다. 러시아 당안을 주 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과 소련, 인도와의 관계 연구가 위주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현대 북중 관계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관련 연구로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다. 타 연구기구들과 비교했을 경우 보다 전문적이라 할 수 있겠다.
기관등급	—	
설립시간	2001년	
책임자	선즈화(沈志華)	
연구자	선즈화(沈志華), 위웨이민(余偉民)	
홈페이지	http://www.coldwarchina.org	
연락처	전화: 021)5434-0167 주소: 上海市閔行區東川路500號 華東師範大學人文大樓5402室 우편: 200241	

No.11 통지대 아태연구중심 조선반도연구실		
중국어명	同濟大學亞洲太平洋研究中心 朝鮮半島研究室	[소개 및 약평] 통지대 아태연구중심 조선반도연구실은 2001년 5월 25일에 설립되었다. 주요 책임자의 연구방향을 볼 때 주로 한국연구, 한반도문제, 중미관계, 북미관계 연구에 북중 관계 연구를 포함시키고 있다.
기관등급	——	
설립시간	2001년	
책임자	추이즈잉(崔志鷹)	
연구자	추이즈잉(崔志鷹)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 없음	
연락처	전화: 021)6598-3143 (정치외국제관계학원 사무실) 메일: jingfeixu@tongji.edu.cn 주소: 上海市四平路1239號 우편: 200092	

No.12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조선반도연구중심		
중국어명	上海社會科學院國際關係研究所 朝鮮半島研究中心	[소개 및 약평] 관련 소개 없음. 두 연구자의 연구성과로부터 볼 때 한반도문제, 핵문제 연구와 관련하여 북중 관계를 전망하고 있다.
기관등급	——	
설립시간	2011년	
책임자	류유밍(劉鳴)	
연구자	류유밍(劉鳴), 양홍메이(楊紅梅)	
홈페이지	http://www.ipe.sis.pku.edu.cn	
연락처	전화: 021)5306-8384 팩스: 021)5306-8384 주소: 上海市淮海中路622弄7號 우편: 200020	

No.13 랴오닝사회과학원 조선반도연구중심		
중국어명	遼寧省社會科學院 朝鮮半島研究中心	[소개 및 약평] 관련 소개 없음. 중국즈왕의 연구물로부터 볼 때 관련 연구자의 연구방향은 북중 경제관계이다.
기관등급	——	
설립시간	——	
책임자	김철(金哲)	
연구자	김철(金哲)	
홈페이지	http://www.lass.net.cn	
연락처	전화: 024)8680-6061 주소: 遼寧省沈阳市皇姑区泰山路86号 우편: 110031	

No.14 라오닝사회과학원 변경사지연구소		
중국어명	遼寧省社會科學院 邊疆史地研究所	[소개 및 약평] 관련 소개 없음. 중국즈왕의 연구물로부터 볼 때 관련 연구자의 연구방향은 북중 경제관계이다. 뤄초우는 동 기관의 조선-한국연구중심의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역시 관련 소개는 없었다.
기관등급	————	
설립시간	————	
책임자	뤄초우(呂超)	
연구자	뤄초우(呂超)	
홈페이지	http://www.lass.net.cn	
연락처	전화: 024)8680-6061 주소: 遼寧省沈陽市皇姑區泰山路 86號 우편: 110031	
No.15 라오둥학원 조선반도연구중심		
중국어명	遼東學院 朝鮮半島研究中心	[소개 및 약평] 없음. 관련 소개 없음. 연구자의 연구물로부터 볼 때 북중 경제관계 연구가 위주다.
기관등급	————	
설립시간	2005년	
책임자	만하이펑(滿海峰)	
연구자	만하이펑(滿海峰), 뱌징(卞晶)	
홈페이지	http://www.ldxy.cn	
연락처	전화: 0415)378-9120 주소: 遼寧省丹東市臨江後街116號 우편: 118001 이메일: manhaifeng@163.com	
No.16 지린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중국어명	吉林省社會科學院 朝鮮韓國研究所	[소개 및 약평] 지린성사회과학원은 중공지린성위 직속 연구기관이다. 그 산하에 있는 조선-한국연구소는 한반도 정치, 경제, 역사를 주 연구방향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독립운동, 한국정당정치, 한국의 공업화 및 역사적 경험, 북한 자립경제건설과 실천, 북핵문제, 대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과 창지투 육로건설 연구 등 면에서 자신의 특색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중 관계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기관등급	————	
설립시간	————	
책임자	탄홍메이(譚紅梅)	
연구자	장위산(張玉山), 탄홍메이(譚紅梅), 쑹젠(宋健), 왕원(王圓)	
홈페이지	http://www.jlass.org.cn	
연락처	전화: 0431)8463-8323 주소: 吉林省長春市自由大路5399號 우편: 130033	

No.17 지린성동북아연구중심		
중국어명	吉林省東北亞研究中心	[소개 및 약평] 지린성동북아연구중심은 지린성 정부 소속 연구기관이며, 지린성사회과학원에서 대리 관장하고 있다. 1988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사회과학연구와 관련 자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 연구를 위주로 정치, 역사, 문화, 종교, 철학, 법률, 사회 등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기관을 조직하여 동북아지역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협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북한을 포함한 해외 관련 연구기관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동북지역에서 보다 이른 시간에 북중(경제)관계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관등급	지린성 정부 소속 지린성사회과학원 대리 관장	
설립시간	1988년	
책임자	역대 비서장으로 장위산(張玉山), 천룡산(陳龍山) 외 있음	
연구자	장위산(張玉山), 천룡산(陳龍山), 후밍웬(胡明遠)	
홈페이지	http://www.jlass.org.cn	
연락처	전화: 0431)8463-8323 주소: 吉林省長春市自由大路5399號 우편: 130033	

No.18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중국어명	吉林大學東北亞研究院	[소개 및 약평] 지린대 동북아연구원은 원 6개 연구소를 통합하여 1994년 4월 설립되었다. 현재 산하에 6개 연구소와 정보문헌센터를 두고 있다. 역사와 문화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지역경제연구소, 국제정치연구소, 인구, 자원과 환경연구소, 두만강국제개발연구소, 정보문헌센터이다. 그 중 세계경제연구소, 지역경제연구소, 국제정치연구소에서 한반도문제, 북중 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북중 관계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는 관련 연구주제의 한 부분으로 연구하고 있다.
기관등급	——	
설립시간	——	
책임자	위소우(于瀟)	
연구자	쉬원지(徐文吉), 장후이쯔(張慧智), 파오잉아이(朴英愛), 바뎬권(巴殿君)	
홈페이지	http://nasa.jlu.edu.cn	
연락처	전화: 0431)8516-6390 주소: 林省長春市前進大街2699號 東榮大廈 우편: 130015	

No.19 지린대 행정학원 동북아전략과 정책연구소		
중국어명	吉林大學行政學院 東北亞戰略與政策研究所	[소개 및 약평] 관련 소개 없음. 연구자 대부분이 동 대학 동북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등급	학원 소속	
설립시간	——	
책임자	류우칭차이(劉清才)	
연구자	장후이쯔(張慧智), 바뎬권(巴殿君), 치보오량(戚保良), 귀뤄이(郭銳)	
홈페이지	http://cnsp.jlu.edu.cn	
연락처	전화: 0431)0431-85166119 주소: 中國吉林省長春市前進大街 2699號 우편: 130012	

No.20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중국어명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소개 및 약평]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은 기존의 조선-한국연구중심과 아시아연구중심을 기반으로 연변대학의 한반도연구의 전문성과 특색을 한층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 2개의 중심과 5개의 연구소(국제정치연구소, 역사연구소, 경제연구소, 비교문화연구소, 법률연구소)를 두고 있다. 연구영역은 한반도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법률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중국 CSSCI급(등재지) 「동장학간(東疆學刊)」을 출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차세대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연구생학원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석사생 21명이 있다. 연변대학의 역사적 연혁과 지리적 우세로 한반도문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북한보다 한국연구가 위주였다. 최근 들어 북한문제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보다시피 북중 관계 연구와 관련해서는 정치, 경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 분야 연구자 중 조오리신, 진상머, 마정은 최근에야 북·중 관계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역사 분야는 주로 고대사, 근대사 연구가 위주다. 현대 북중 관계사 연구가 결핍한 상황이다.
기관등급	국가가지	
설립시간	2014년	
책임자	파오찬쿠이(樸燦奎)	
연구자	정치->진창이(金強一), 조오리신(趙立新), 진상머(金祥波), 마정(馬晶), 이금휘(李金輝) 경제->린진수(林今淑), 첸저난(權哲男), 추이저호우(崔哲浩), 장용쉐(張永學) 사회->순춘르(孫春日)	
홈페이지	http://ikbs.ybu.edu.cn	
연락처	전화: 0433)273-2181 팩스: 0433)243-6571 주소: 吉林省延吉市公園路977號 科技樓5樓 우편: 133002	

<표 2>를 통해 보다시피 20개의 현안 관련 연구기관 가운데 북중 관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은 없으며, 아직도 포괄적 주제 속에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즉, 한반도 역사와 현안에 대한 하위범주로 북중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소련 미국 등 큰 나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관심영역을 넓혀서 북한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북한 더 좁혀서 북·중 관계의 역사적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아직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통사(通史)도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기관이 많으면서도 북한, 북·중 관계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조사를 통한 첫 번째 결론이다.

그 결과 현실정치는 중국학계에 대하여 대북 관련 정책 해답을 원하지만,

전문가가 부족한 중국의 북한 연구는 “무해(無解)”의 슬럼프에 빠져있다.⁴⁾

왜 최대의 맹방, 동북아지역구도에서의 ‘최고의 정치적 파트너’, 경제협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전문학자는 이렇듯 크게 부족할까?

그 원인 역시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형제적 당”의 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왔다. 사회주의 형제당 사이에 객관적 연구를 통한 과학적 인식과 문제제기는 ‘금기’였을 것이다. 그 누구도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양 당’, ‘양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고, 그 결과가 <표 2>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다. 중국의 대 북한 정책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2006년 여름 이후 표면화한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중국 내 연구기관의 주요 학자들에 대한 시선은 “걸어다니는 『인민일보』”였을 뿐이다.

2006년 10월 9일 신화통신을 통하여 중국 외교부는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횡포한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단호히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당 대 당’, ‘군대와 군대’가 각각 수행하는 교류 협력 때문에 외교부는 자기 역할과 발언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그런데 외교부의 북한에 대한 항의성명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고, 중국 학계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써 중국학계는 북한 핵보유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중국 역할의 극대화를 위해 북중 관계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북한문제의 재성찰을 본격화하였다.

4) 요즘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관련 세미나에서 북핵문제는 “무해” 즉, 해결방법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류유도빈(劉德斌), 『朝鮮半島問題與周邊大國關係學術會義資料』(중국 국제관계학회·외교학원·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주최 세미나, 2015) 참조.

III. 중국 학계의 북중 관계 성격에 대한 인식과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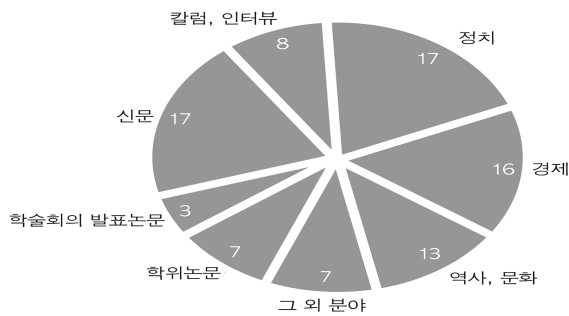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도 더할 바 없이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중국이 대북 강압정책을 펼친다면 그 반대의 데미지 또한 상당할 것이다.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을 위하여 북한과의 상호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 현실은 중국 학계에서 북중 관계 성격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2015년 3월 23일 기준으로 중국 학술정보원 사이트 『중국즈왕(中國知网)⁵⁾』에서 “중국과 조선(1981—2015년)”, “중조관계(1984—2014년)”를 (제목)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각각 64편과 91편이 추려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북중 관계를 주제로 한 88편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북중 관계 연구 분야별 논문은 1) 정치 분야 논문 17편, 2) 경제 분야 논문 16편, 3) 역사문화 분야 논문 13편, 4) 학위논문 7편, 5) 학술회의 발표논문 3편, 6) 그 외 분야 논문 7편, 7) 신문 보도 자료 17편, 8) 칼럼·인터뷰 자료 8편이었다. 분야별 비중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북중 관계 연구 분야별 양적 비교⁶⁾



5) 중국즈왕(www.cnki.net)은 1979년 논문부터 검색 가능함.

6) 88편 논문 등에 대한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 문헌에서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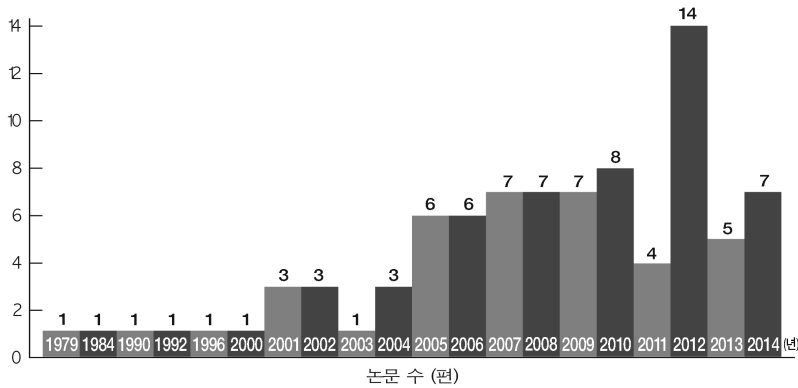
“북핵”(740편), “조선전쟁”(757편), “조선반도”(1,552편)를 제목(키워드)로 검색했을 때와 현격한 양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중 관계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분야별 연구성과를 볼 때 정치 분야는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북중 관계의 큰 맥락과 같이한다. 경제 분야는 2002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직후인 2003년부터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후진 타오 주석이 방북한 직후인 2005년 이후부터 크게 늘어났다. 역사문화 분야는 1편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특히 2007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의 발표 논문들도 있었겠지만, 논문을 공개 발표하지 않은 경우 통계를 잡을 수 없었다.

학위논문 7편 중 5편은 석사학위논문이다. 1편을 제외하고 전부 2009년 이후에 나왔다. 그 외 분야의 논문은 주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외의 연구 성과이다. 신문 보도 자료도 2편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에 집중되었다. 칼럼·인터뷰 자료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시사적 접근에 그치며, 정치 분야에 포함시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북중 관계 연구의 연도별 추이를 정리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북중 관계 연구 연도별 양적 비교



북·중 관계 연구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5년 직후부터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학계의 북·중 관계에 대한 인식이 2006년 제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전통파’와 ‘전략파’로 의견이 크게 나뉘어진 것과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국 학계의 대북정책연구를 대표하는 ‘전통파’와 ‘전략파’의 기본 관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중국 대북정책에 대한 전통파와 전략파의 기본관점

분류 및 기본관점		전통파	전략파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기본이익에 대한 양자의 인식 차이		① 북·중 관계는 순망치한적 특수관계 ②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강압으로 초래되는 북한의 위협 행동을 못하도록 방지 ③ 중국은 반드시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해 대북지원을 유지 ④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역’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자산	① 중국은 미국에 접근하여 중·미 협력 하에 대북 강경의 통일진전을 구축 ② 중국은 북한 핵실험의 직접적인 피해자 ③ 북한은 중국의 혜택을 받으면서 중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 ④ 중국은 전략적 부담이므로 대북지원 카드를 활용해 북한을 압박해야 함과 동시에 여타 4국과 협력하여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함
기본이익 1	한반도 평화 보장	공감	공감
기본이익 2	한반도 비핵화 보장	북한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간접적인 악영향 미침	북한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악영향 미침
기본이익 3	북한 생존 보장	①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 회피	① 북한체제에 대해 비판적 태도
		② 북한체제 존속여부와 국가 생존의 일치성 명확	②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취할 것을 적극 지지
		③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북한 3대세습체제를 지지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격과 비판에 대하여 언급 없음	③ 북한체제 존속 여부와 국가생존의 일치성 불인식. 아울러 북한이 전면적인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취할 경우 북한체제의 불안정과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을 인식 못함

그런데 <표 3>에서 정리한 관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구분이 점차 희석되어 갔다. 현실적으로 중국공산당은 대북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전통파’와 ‘전략파’의 관점 모두를 수렴하여 현실에서 풀어야 할 관련 문제들을 선택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일 것이다.⁷⁾ 학문 내적으로도 두 관점의 분화가 실증적 연구성과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있었고, 북·중 관계의 과거와 현재의 실제적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최근에 와서 두 관점의 수렴현상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선택은 ‘특수한’ 북·중 관계의 역사적 형성을 반영한 것이며, 북한 핵실험과 북·중 경험 활성화가 병진하는 현실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왜 중국과 북한이 북핵문제 등에서 ‘노골적인 반감’을 상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부문에서 급성장을 지속해 왔을까? 그 해답은 중국과 북한의 ‘유무상통(有無相通)’에 있을 것이다.⁸⁾ 무엇보다도 북한은 중국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동해 방향으로 교통로와 항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2005년 후진타오는 평양을 방문하면서 5년간 20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약속하였다.⁹⁾ 2006년, 2009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으로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¹⁰⁾ 2009년 10월 수교 60주년 행사에 맞춰 이뤄진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을 통해 ‘약간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다. 북·중 관계는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제일 높은 레벨을 계속 유지하였고,¹¹⁾ 북·중

7) 자세한 내용은 이금휘, 『북한과 중국의 경제지정학적 관계와 경험활성화』, 서울: 선인, 2014, pp. 53~55 참조.
 8) 滿海峰, “新時期中朝關係定位與中朝邊境地區經濟合作發展.” 『遼東學院學報(中國)』, 第13卷 第6期 (2011), p. 121.
 9) 권영경, “신 북·중 협력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평화학연구』 제13권 1호, 2012, pp. 147~148.
 10) 2006년, 2009년 2차례의 북한 핵실험 후,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에 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이다. 이 같은 중국의 결정에 대해서 북한도 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박창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북 관계의 변화.” 『사회과학논집』 제37집 2호, 2006년, pp. 85~102.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7조를 보면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교역 규모도 성장세를 지속하였다.¹²⁾ 더불어 중국은 2003~2007년 사이 6차례의 ‘6자 회담’을 이끌어냄으로써 세계 정치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두 나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전지정학적 가치에서 경제지정학적 가치의 추구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¹³⁾

그런데 중국의 대표적인 북·중 관계 연구자들은 아래 <표 4>에서 정리하였듯이 북·중 관계 성격규명에서 ‘지정학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강조한다.¹⁴⁾

<표 4> 북·중 관계 ‘특수성’의 영향 요인

연구자	결정적 요인
천평권·왕관젠	3가지 요인: ①지리적 요인★ ②역사적 요인 ③현실
진징이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 이후 북·중 관계는 순망치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중국에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가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때로부터 양국 관계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전개
스인홍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북한과 소원해질 수도 없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 지정학적 관계로 중국이 각별한 인내심과 의지력을 갖고 접근하고 있음

중국은 학계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요인을 북·중 관계 ‘특수성’ 요인으로 봐 왔다. 개인별 선집, 문선, 연감, 연설문, 문건집, 보고서, 사료집을 살펴봐도 북·중 순망치한적 관계를 운운할 때가 많았다.

되어 있다. 즉 북·중 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북·중 경협은 동 조약 제5조 “...(전략)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며 양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의 반영이기도 하다.

12) KOTRA, 『201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2-018, 2012.

13)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문제 해결과 외교적 고립의 ‘돌파구’로, 중국은 국내 경제 발전의 불균형구조 타개를 위한 주변 환경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금휘, 앞의 책, pp. 177~193.

14) 자세한 내용은 이금휘, 앞의 책, pp. 90~91.

대표적으로 6·25전쟁 시기 마오쩌둥 주석은 타이완 해방을 접을 만큼 6·25전쟁 참전을 우선시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마오쩌둥 주석이 한반도를 “중국의 머리부분(半島是中國的頭部)”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우리가 출병하지 않으면 적들이 압록강변까지 진입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국제 반동 세력들의 기세를 북돋아 각 방에 모두 불리하다. 우선 동북에 불리하고 동북 변방군 전체가 말려들며, 남만의 전력이 적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¹⁵⁾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가 적대국에게 점령당하면 중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이 점은 근대의 세 차례 전쟁 즉,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중·일 전쟁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 학계는 북·중 관계 설정에서 이 점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듯싶다. 때문에 중국 학자들은 한반도를 중국의 ‘숨통(咽喉)’ 부분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역시 북·중 지정학적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 학계의 입장에서는 절대 북한을 포기할 수 없고,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복원함과 동시에 관련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중국 학계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북·중 관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연구성과가 부족하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정책 관련 연구 및 그 연장선상에서 정책마저도 ‘모호성’을 띠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이 문제로 인하여 ‘G 2’로 부상한 중국의 국제적 입지는 종종 곤경에 빠지곤 한다. 또한 중국의 국내 경제발전의 불균형구조를 타개하는데도 큰 걸림돌이란 지적까지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동북아진흥계획」, 「두만강계획」 추진이 홍보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한·중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중 관계의 향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5)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毛澤東外交文選』, 中國: 中央文獻出版社·世界知識出版社, 1994, p. 144.

IV. 결론 : 문제점과 향후 과제

중국의 연구기관과 성과들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북중 관계의 성격, 향후 발전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향후 북·중 지정학적 관계의 내용 변화에 대하여 지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동시에 또한 각각의 비중을 가려가면서 포괄 설명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연구쟁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북중 관계 연구 전문 연구기관이 없으며 포괄적 주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 각지의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중리, 중일 관계 연구소가 있지만 북중 관계 연구소는 아직 없다. 학계에서 북중 관계 연구는 아직 그 영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다. 학계 전문기관의 설치와 전문 연구자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북중 관계 연구자의 연구 방향으로부터 볼 때 큰 나라와의 관계 즉, 국제관계 전공자들이 전향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국 관계의 하위 차원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강하며, 사안별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 북중 관계의 전체적,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중국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 인재 육성에서 한국 대학의 북한학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중국의 정치학, 국제관계학 전공자들은 관련 연구에서 북한 사료를 간과하여 단지 시사적 해설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한국학계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중 관계 연구성과의 특성을 볼 때, 주로 한중 수교 이후에는 2000년대 이후 연구에 많이 집중되어있다. 그 이전 시기는 관심이 매우 낮다. 최근에 와서 중국 화둥사대 냉전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

을 뿐이다. 사실 북중 관계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그 ‘이중적 구조’는 한중 수교, 북한 핵실험, 북중 경협활성화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이중적 구조’의 틀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만 이러한 사안 때문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다. 역사에서 연속성과 단절성을 동시에 포함한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넷째, 향후 지역과 언어 장점을 동시에 가진 연변대학의 조선반도연구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연구기관이며, 한반도연구의 ‘글로벌 로컬’로서 한국, 북한과의 교류가 빈번하다. 2015년 8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일본역사왜곡국제학술회의 조직에서도 중국사회과학원보다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조선반도연구원은 2014년에 2개의 국가급 연구기지를 통합하여 설립하였다. 현재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은 직간접적인 남북 ‘소통의 장’으로도 역할하고 있다.

다섯째, 북중 관계 연구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중국 학계를 포함하여 지정학 이론을 활용하여 북중 관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 지정학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발전한 지정학 이론을 활용하면, 과거와 현재의 북중 관계 역시 새롭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중국이 왜 미국 등 나라들과 갈등하면서까지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문 등에 답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1. 중국에서 발간된 북·중관계에 관한 주요 논문 및 간행물

1) 논문(정치)

- 樸鍵一. “90年代以來中國朝鮮半島研究狀況.” 『當代亞太』 第8期, 2001.
- 陶常梅·林國亮. “略論“一邊倒”外交政策下的中朝關係.” 『安徽教育學院學報』 第22卷 第1期, 2004.
- 田中青. “中朝關係與朝核問題.” 『韓國研究論叢』 第11輯, 2004.
- 陶常梅·李曉光. “一條線’外交政策下的中朝關係.” 『安徽教育學院學報』 第24卷 第5期, 2006.
- 蔡建. “朝鮮戰爭對中國與朝鮮半島關係的影響.” 『韓國研究論叢』 第13輯, 2006.
- 魯亞真. “相互依賴角度下的中國與朝鮮半島.”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期, 2007.
- 郭銳.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的歷史流變——一種體系秩序的認知與建構.” 『韓國研究論叢』 第1期, 2007.
- 陶常梅·朱廣斌·林國亮. “‘獨立自主’外交政策下的中朝關係.” 『山東省農業管理幹部學院學報』 第23卷 第2期, 2008.
- 鄧峰. “艱難的博弈:美國、中國與朝鮮戰爭的結束.” 『世界歷史』 第4期, 2010.
- 李成仁. “深化睦鄰友好 促進全面合作——中越、中朝、中老關係三個16字方針的產生和發展.” 『當代世界』 第10期, 2010.
- 朱遼野. “後朝核時期的中朝關係走勢.”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2卷 第6期, 2010.
- 袁學哲·黃鳳志. “21世紀初中國朝鮮半島政策的多維審視.”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0卷 第4期, 2012.
- 于洪洋·巴殿君. “論中朝關係及中國的作用.”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4卷 第5期, 2012.
- 魏志江·王宇涵. “朴槿惠總統訪華後的中韓、中朝關係與朝鮮半島局勢.” 『廣東外語外貿大學學報』 第5期, 2013.
- 王海凡. “中朝“唇齒關係”的確立與弱化.” 『朝鮮·韓國歷史研究』 第15輯, 2014.
- 袁學哲. “中國朝鮮半島政策面臨的機遇與挑戰.”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6卷 第5期, 2014.
- 仇發華. “新時期中國朝鮮半島戰略調整的變化、動因與趨勢.” 『國際關係研究』 第6期, 2014.

2) 논문(경제)

- 徐文吉. “中朝經貿關係的發展及其努力方向.” 『東北亞論壇』 第1期, 2003.
- 李靖宇·範鳳. “中國與朝鮮半島兩國經貿合作戰略升級的依據認證.” 『亞太經濟』 第3期, 2005.
- 郭銳·徐文吉. “中朝韓經貿關係縱深發展的戰略進路.” 『國際經貿探索』 第22卷 第4期, 2006.
- 張玉山. “中朝經貿關係發展的現狀及未來走勢分析.” 『東北亞論壇』 第15卷 第1期, 2006.
- 張鋒. “在合作和互補中取得雙贏——中國與朝鮮礦產資源開發狀況分析.” 『韓國學論文集』 第1期, 2007.
- 保建雲. “中國與朝鮮雙邊貿易的發展特點、比較優勢及問題分析.” 『社會科學輯刊』 第6期 (總第173期), 2007.
- 吳德烈. “中朝經貿關係與東亞區域合作.” 『國際貿易』 第3期, 2008.
- 高新力. “朝鮮半島南北關係的改善對中朝、中韓貿易的影響.”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0卷 第5期, 2008.
- 金香海. “中朝經貿關係的現狀與課題.” 『韓國研究論叢』 第20輯, 2009.
- 呂超·張萬里. “中朝經濟關係的現狀與前景.” 『東北亞論壇』 第18卷 第4期, 2009.
- 王小娟·狄乾斌. “關於中國與朝鮮半島兩國經貿合作戰略升級的現實論證.” 『經濟研究導刊』 第1期(總第173期), 2010.
- 權哲男. “朝鮮對外貿易結構特徵及其對中朝經貿關係的影響.”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4卷 第3期, 2011.
- 滿海峰. “新時期中朝關係定位與中朝邊境地區經濟合作發展.”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6期, 2011.
- 李俊江·范碩. “中朝經貿關係發展現狀與前景展望.” 『東北亞論壇』 第2期, 2012.
- 朴光姬. “中國與朝鮮經貿關係轉型中的困境及對策.” 『東北亞論壇』 第3期(總第101期), 2012.
- 李甯. “中國與朝鮮半島經濟關係的歷史特徵——以民間貿易為視角.” 『上海商學院學報』 第4卷 第5期, 2012.

3) 논문(역사·문화)

- 楊昭全. “現代中朝友誼關係史的開端 ——三一運動和五四運動期間兩國人民相互支持的史實.” 『世界歷史』, 第3期, 1979.
- 鄭信哲. “略論中國與朝鮮半島之間的歷史文化交流.” 『當代韓國』 冬季號, 2002.
- 王向遠. “近年來我國中朝文學關係研究概評.”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5卷 第4

期, 2002.

- 李曉傑. “中國與朝鮮的歷史淵源和歷次援朝戰爭及其影響.”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第28卷 第2期, 2007.
- 沈志華. “朝鮮戰爭期間中朝高層的矛盾、分歧及其解決——冷戰中社會主義陣營內國家關係研究案例之一.” 『暨南史學』第5輯, 2007.
- 龐朕·楊鑫宇. “從同盟到夥伴:中朝關係的歷史演變.” 『重慶社會主義學院學報』第3期, 2008.
- 楊昭全. “我的中朝、中韓關係史研究.” 『朝鮮·韓國歷史研究』第10輯, 2009.
- 沈志華. “試論朝鮮戰爭期間的中朝同盟關係.” 『歷史教學問題』第1期, 2012.
- 薛衡天. “從並肩抗日到抗美援朝——以東北革命根據地為中心的中朝關係.” 『近代史研究』第6期, 2012.
- 餘偉民. “蘇聯與中朝關係(1945-1958).” 『冷戰國際史研究』第2期, 2013.
- 餘偉民. “蘇聯的選擇與中朝關係的形成(1945-1953).” 『朝鮮·韓國歷史研究』第15輯, 2014.
- 尤淑君. “甲午戰爭後的中朝關係.” 『山東社會科學』第5期(總第225期), 2014.
- 沈志華. “面對歷史機遇:中美關係和解與中朝關係(1971-1974).”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期, 2014.

4) 학위논문

- 虞滿華. “冷戰後中國與朝鮮半島關係的發展變化及策略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4.
- 林聲揚. “試論朝鮮停戰至中國文革前的中朝關係.”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 沈樹明. “中國與朝鮮次區域經濟合作分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 周玲. “冷戰前後中朝關係研究.” 電子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 倪悅. “中朝關係的形成、特徵和新變化.” 上海外國語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權紅. “中朝政治外交關係研究(1949-2009).” 延邊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 袁學哲. “21世紀初中國朝鮮半島政策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5) 학술회의 발표문

- 姜龍範. “中朝關係的歷史、現狀與發展——關於朝鮮半島問題上的中國戰略.” 中國中外關係史學會第六屆會員代表大會, 『多元視野中的中外關係史研究論文集』(2005年8月1日).
- 楊昭全. “建國60年來我國的朝鮮·韓國史和中朝、中韓關係史研究綜述.” 中國朝鮮史研究, 『朝鮮·韓國歷史研究(第十二輯)論文集』(2012年3月31日).

馬晶·權紅. 冷戰時期的中朝關係.”中國朝鮮史研究會,『朝鮮·韓國歷史研究(第十二輯)論文集』(2012年3月31日).

6) 논문(그 외 분야)

- 李成德. “評《中朝關係史論文集》.”『社會科學戰線』第3期, 1990.
- 薑淳和. “活躍國際學術交流,加強中朝關係史研究.”『延邊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期, 1992.
- 鄭成宏. “對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的系統闡釋——《中朝關係通史》評介.”『當代韓國』第4期, 1996.
- 金鳳君. “東北亞運輸合作:中國與朝鮮半島陸路交通聯繫與運輸組織戰略.”『世界地理研究』第11卷 第1期, 2002.
- 王海明. “中國與朝鮮半島美術的交流與相互影響.”『藝術百家』第1期(總第94期), 2007.
- 苗青·衣桂影·徐波·柳建軍·王龍·胡森·支樹潔. “中國-朝鮮原油管道中方段流動安全性評價.”『油氣儲運』第30卷 第4期(總第268期), 2011.
- 陳秀娟. “從社會關係角度看中國與朝鮮歷史關係的整體性.”『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第30卷 第3期, 2012.

7) 신문

- “金永南會見薑春雲.”『新華每日電訊』2001年7月1日.
- “江澤民會見金永南和洪成南.”『新華每日電訊』2001年9月5日.
- “胡錦濤向金正日致口信.”『人民日報』2005年7月14日.
- “胡錦濤同金正日舉行會談.”『人民日報』2005年10月29日.
- “胡錦濤會見金永南.”『人民日報』2005年10月30日.
- “中國朝鮮簽約共同開發黃海油田.”『東方早報』2005年12月26日.
- “胡錦濤同金正日舉行會談.”『人民日報』2006年1月19日.
- “中朝兩國領導人就《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簽訂45周年聯名互致賀電.”『人民日報』2006年7月11日.
- “中國朝鮮重新簽署航空協定.”『東方早報』2008年7月3日.
- “溫家寶與朝鮮總理金英日舉行會談.”『人民日報』2009年3月19日.
- “胡錦濤向金正日致信函.”『人民日報』2009年9月19日.

“中朝關係一甲子.” 『南方週末』 2010年12月23日.
“傳承友好 加強合作.” 『人民日報』 2011年10月24日.
“中朝關係中的幾次重大考驗.” 『晚報文萃』 2012年9月1日.
“塑造正常的中朝關係.” 『東方早報』 2012年12月14日.
“金正恩執政後首派特使訪華.” 『文匯報』 2013年5月23日.
“一水之交:中朝關係溯源.” 『中國經營報』 2014年7月7日.

8) 칼럼·인터뷰

李洋. “中朝關係中的重大事件——胡耀邦總書記訪問朝鮮.” 『瞭望週刊』 第19期, 1984.
周慈樸. “推動中朝友好合作關係不斷發展——楊尚昆主席第三次訪朝.” 『瞭望週刊』 第15期, 1992.
黃華. “永載中朝關係史冊的訪問——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非正式訪華.” 『當代世界』 第7期, 2000.
于美華. “中朝關係究竟怎麼樣.” 『世界知識』 第4期, 2008.
張文木. “中國,朝鮮戰爭最大的贏家.” 『北京紀事(紀實文摘)』 第4期, 2008.
林珊瑚. “張璉瑰:中朝關係回暖的背後.” 『南方人物週刊』 第38期, 2010.
新華. “中朝關係面臨的幾次重大考驗.” 『人才資源開發』 第11期, 2012.
張雲. “中朝關係會重蹈中蘇關係覆轍嗎?.” 『時代人物』 第3期, 2013.

2. 기타 참고 논저

권영경, “신 북·중 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평화학연구』 제13권 1호, 2012.
박종철, “북중관계 연구현황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4집 1호, 2010.
박창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북 관계의 변화.” 『사회과학논집』 제37집 2호, 2006년.
이금희, 『북한과 중국의 경제지정학적 관계와 경협 활성화』, 서울: 선인, 2014.
전병곤·양갑용,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2-09, 201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毛澤東外交文選』, 中國: 中央文獻出版社·世界知識出版社, 1994.
한석희, “중국에서의 한반도연구: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논총』, 43집 2호, 2003.
KOTRA, 『201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2-018, 2012.

ABSTRACT

China–DPRK Research Institutions in China
and their Research Outcomes

Li, Jin-Hui(Tsinghua University)

This study sets out to examine the China–DPRK research institutions in China and their research outcomes. This study finds that China, as the “No. 1 ally” of North Korea, has no special research institutions on China–DPRK relations. Most studies in this field are focused on the comments of popular news topics. In addition, most researchers share the same education background—most of them majored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y all conducted their researches under the framework of relations among great powers. As a result, the researches are not systematic enough.

This study also finds out that only several papers talked about the status quo of China–DPRK research institutions in China. Those papers focused on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located in Beijing and Shanghai, and neglected the potential of Yanbian University, which boasts ‘global and local’ advantages because of its location and language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future, researchers should conduct overall research on China–DPRK relations in order to avoid getting one–sided views. This study is of pragmatic and academic values and hopefully it will usher in better and in–depth academic exchanges between China’s DPRK research institutions and ROK’s counterparts.

Keywords : China, North Korea, research institutions of China–DPRK relations,
research outcomes of China–DPRK relations

투고일 : 2015년 10월 30일, 심사일 : 2015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03일